

韓 중소기업 수출, 동남아>중국... 베트남 32% 뛰어

중국 수출 비중은 5년 전 23.7%→21.7%로 하락 작년 수출액 1008억불... 전체 기업의 17.6% 차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수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지난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2017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동남아(28.6%), 중국(21.7%), 미국(11.1%), 일본(9.3%), 유럽연합(EU,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4% 늘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이 32.5% 뛰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동남아 수출액 비중은 지난 2016년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2013년 24.2%, 2014년 24.8%, 2015년

27.7%로 지속해서 상승하다 2016년 27.6%로 하락한 바 있다. 수출액은 이 기간 매년 늘었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5년 전인 2013년 23.7%에서 21.7%로 하락했다. 수출액 자체도 같은 기간 동남아는 249억 달러에서 289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중국은 244억달러에서 219억달러로 줄었다. 이 기간 동남아 수출액은 매년 중국 수출액보다 높았다.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수출 비중은 전체 기업의 동남아 수출 비중(26%)보다도 높았다. 반면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기업 비중(24.8%)보다 낮았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기계(13.2%), 정밀기계(9.3%), 섬유직물(8.9%), 반도체

(5.2%), 플라스틱제품(5.0%) 순이다. 일반기계와 정밀기계는 전년 대비 비중이 더욱 늘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 품목 역시 일반기계(18.6%), 섬유직물(11.9%), 정밀기계(10.7%), 플라스틱제품(6.9%), 기타 정보기술(IT) 부품(5.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정밀기계의 비중은 1년 전 5.4%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에서도 일반기계와 정밀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각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 일반기계(15.7%), 정밀기계(14.3%) ▲미국 15.0%, 10.1% ▲일본 18.8%, 8.7% ▲EU 14.7%, 9.4%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수출액은 1008억달러다. 전체 기업 수출(5714억달러)의 17.6%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수출은 1년 전보다 9.5% 증가

했지만, 전체 기업의 수출 증가율(15.6%)보다 낮았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61.3%, 서비스업이 38.1%다. 전년 대비해선 각각 11.2%, 7.1% 증가했다. 재화 성질별로 보면 자본재(50.2%)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밖에 원자재가 32.7%, 소비재가 17.1%다. 각각 1년 전보다 10.4%, 10.1%, 6.2% 늘었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비중 별로 보면 일반기계(15.0%), 정밀기계(9.5%), 섬유직물(5.5%), 수송장비 부품(4.8%), 철강(4.5%), 석유화학제품(4.2%), 플라스틱제품(4.1%), 전기기계(3.9%), 기계요소 및 공구류(3.7%), 내구성 생활용품(3.5%) 등이다.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의 수입액은 1189억 달러로 수출액보다 많다. 전체 기업 수입

(4714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다. 증가율은 13.1%로 이 역시 전체 기업의 수입 증가율(17.9%)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업종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해당 업종에서의 점유율이 낮아 수출이 수입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수입 상위 품목은 일반기계(6.8%), 정밀기계(6.8%), 반도체(6.0%), 철강(5.2%)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36.0%)이 압도적으로 높고 동남아(15.9%), EU(14.7%), 일본(11.5%), 미국(10.1%) 순이다. TEC는 관세청 무역통계와 통계청 기업생명주기통계 및 영리법인 기업채널통계를 연계해 작성된다. 이번엔 2016년 기업통계와 2017년 무역통계를 연계해 작성·공표했다. /뉴스시스

NH농협손해보험,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10월 29일부터 시작, 11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양파의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준다. 특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할인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있다. 한편, 올 해 전북에서는 '양파'보험 가입을 통해 약 170여 양파농가가 약 23억의 보험금을 수령한 만큼, 갈수록 더해가는 이상 기온현상에 대비, 양파농가의 보험가입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냉해피해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관원, 공공비축 포대벼 검사 시작

국립농산물관리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18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일검사를 내일 장수군 장계면(명덕참고)을 첫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전북 14개 시, 군 374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도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량은 총 5만2,029톤으로 일반벼 4만9,112톤, 친환경벼 2,917톤이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벼 매일 검사기준은 기존 공공비축벼 1등급 기준, 친환경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일 검사장에서 농가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표본조사),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벼 매입대상의 벼 품

종 수매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하 농가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 매일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결과 후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검사결과,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도 제외된다. 전북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포대벼 검사 확대와 시차제 출하 검사로 노동력 절감, 대기시간 단축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이 지난 26일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 27명을 초청, 새내기배움터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일터가 되길”

전북지방우정청, 새내기배움터... 소통경연으로 고객감동·직원행복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26일 우정청 10층 라이브포스트홀에서 2018년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 27명을 초청, 새터(새내기배움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우정가족으로 출발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도서 증정, 꽃다발 선물, 공직생활 응원 등 격려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새내기 공무원의 소감 및 다짐과 CEO 특강 등 대화의 시간

을 통해 고객감동, 직원행복,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새로운 마스코트인 '제제'에 대한 설명과 스티커 붙이기, 엽서 작성 등 시간도 가졌다. 제제는 '제비를 의인화'한 것으로, 밝은 모습,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우체국을 의미한다. 이날 참석한 새내기 조성실 주무관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새내기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

는 자세로 최고 노력을 경주하여 활기찬 전북우체국 구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공무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전북우체국 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조지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교촌치킨, '갑질 6촌' 사직... "가맹점 피해 대책 강구"

직원 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이 논란 직후 곧바로 사직했다. 교촌치킨 측은 불매운동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맹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권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는 직원을 폭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25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일 오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교촌에프앤비도 이를 곧바로 수리해 사직처리했다.

앞서 같은 날 일부 언론을 통해 신사업본부장인 권 상무가 2015년 3월25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촌치킨의 한식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직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공개됐다. 권 상무는 이 같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퇴사하게 됐지만 이듬해 초에 재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해왔고 이후 직원 폭행사건을 조사했던 인사 담당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임직원의 인사평가를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뉴스시스

추천 전주매일 창간

fb 농지은행이 농지매도를 도와 드립니다.

2018년 전주·완주·임실지역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신청 안내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외 공부상 지목이 전·담·파수원인 농지

- 이농·전업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 단계적으로 이농·전업·은퇴를 위해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한 농업진흥지역 외 공부상 지목이 전·담·파수원인 농지

○ 신청기한 2018년 연중접수

○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지매도 신청서 (서식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비치)
- 주변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각1부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1부
- 지적도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외 공부상 지목이 전, 담, 파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감정평가 실시후 ㎡당 아래의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
전주시 50,000원 완주군 및 임실군 27,000원

○ 임대기간 5년 단위로 계약

○ 임대료 인근 임대료 평균가격 범위내에서 합의된 금액

○ 임대작물 벼 이외의 타작물(5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270-0520)